

6세 미만 어린이의 항생제 외래 급여 처방 현황

1. 분석배경

- 정부는 항생제 내성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발표하였고('16년), 항생제 적정 사용, 내성균 확산 방지, 감시체계 강화 등 6개 분야, 47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함
- 항생제의 적절한 사용은 항생제 오·남용 감소와 함께 3세대 이상 세팔로스포린계, 퀴놀론계 항생제 처방률 감소를 가져옴
- 본 고에서는 6세 미만 어린이의 항생제 외래 급여 처방 현황을 분석하여 항생제의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근거로 활용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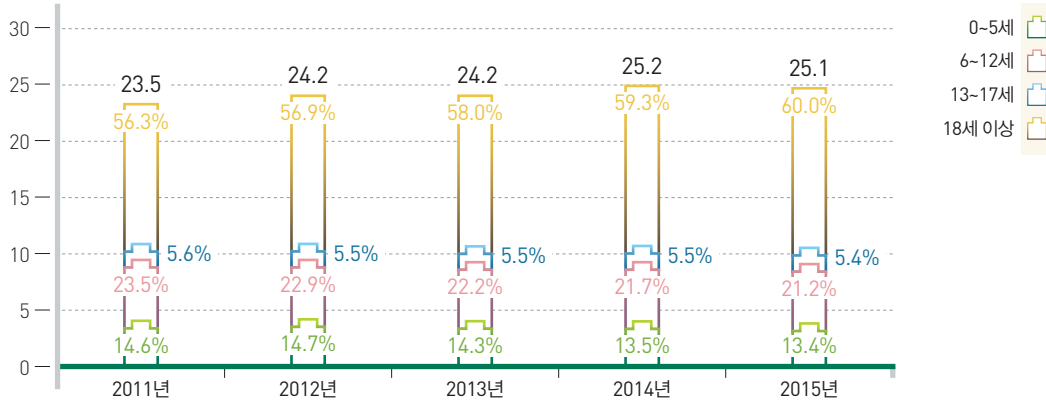
2. 분석 방법과 내용

- 대상 : '11~'15년 모든 요양기관의 외래 급여 처방
- 자료원 : 진료비청구자료의 급여 의약품 청구내역
- 의약품 사용량 단위
 - ▶ 일일사용량(Defined Daily Dose, DDD) : 주요 적응증에 대해 성인이 복용해야 하는 일일 평균 유지용량
 - ▶ DDD/1,000명/일 : 인구 1,000명당 1일 사용량
- 분석 내용 : 전체 항생제 처방량과 연령대별 비중, 항생제 성분별 처방비중

3. 분석결과

- '15년 외래에서 급여로 처방된 전체 연령의 항생제 처방량은 25.1 DDD/1,000명/일로, '11년 이후 처방량 증가 추세가 둔화됨
 - ▶ '15년 전체 연령의 항생제 처방량 중 6세 미만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13.4%로 '11년보다 1.2%p 낮아짐

[그림1] 항생제 전체 연령의 처방량(DDD/1,000명/일)과 연령대별 비중(%)



- 전체 연령의 항생제 처방량 중에서 amoxicillin과 enzyme inhibitor 복합제의 처방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cefaclor, amoxicillin, clarithromycin, roxithromycin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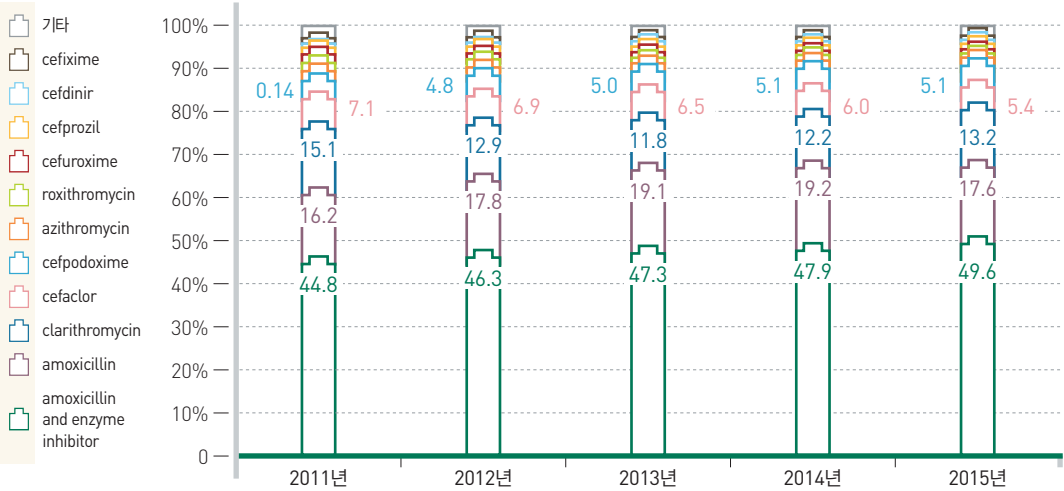
[표 1] 전체 처방량 중에서 항생제 성분별 비중

(단위 : %)

성분명	계열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amoxicillin and enzyme inhibitor	페니실린계	25.5	25.6	25.8	26.3	26.4
cefaclor	2세대 세팔로스포린계	14.2	14.6	15.2	15.3	15.3
amoxicillin	페니실린계	14.1	14.1	14.1	13.7	13.0
clarithromycin	마크로라이드계	8.6	8.2	8.4	9.1	9.6
roxithromycin	마크로라이드계	5.7	5.9	5.8	5.9	5.8
doxycycline	테트라사이클린계	5.2	5.1	5.0	5.0	5.6
levofloxacin	퀴놀론계	3.7	3.9	3.7	3.0	2.5
cefuroxime	2세대 세팔로스포린계	3.0	3.2	3.3	3.6	3.7
ofloxacin	퀴놀론계	3.0	2.7	2.6	2.6	2.5
ciprofloxacin	퀴놀론계	2.4	2.4	2.4	2.2	2.2
cefradine	1세대 세팔로스포린계	2.3	2.1	1.9	1.7	1.7
cefadroxil	1세대 세팔로스포린계	1.5	1.5	1.3	1.2	1.1
ribostamycin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1.4	1.2	1.1	0.9	0.8
cefpodoxime	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1.2	1.5	1.6	1.6	1.7
기타		8.3	8.0	7.9	7.9	8.1

- 6세 미만 어린이의 항생제 처방량 중에서 성분별 비중은 전체 연령과 유사하나, cefaclor보다 amoxicillin과 clarithromycin의 비중이 높음
 - ▶ 특히, 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인 cefpodoxime 비중은 다른 성분보다 낮으나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ofloxacin, ciprofloxacin 등 퀴놀론계 항생제 비중은 낮음

[그림2] 6세 미만 어린이의 항생제 처방량의 성분별 비중(%)



- 2, 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cefaclor, cefpodoxime)의 처방량은 페니실린보다 낮으나, 처방량이 증가하는 반면에 퀴놀론(levofloxacin, ofloxacin, ciprofloxacin) 처방량은 감소함

4. 결론

- 유소아 중이염 진료지침 개발과 급성 중이염 항생제 사용 평가, 약제급여적정성평가 등으로 전체적인 항생제 처방량의 증가 정도가 둔화되고, 전체 처방량 중에서 6세 미만 어린이의 비중도 낮아짐
- 전체 항생제 처방량 중에서 퀴놀론계 항생제 비중은 낮아지는 반면에 2, 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항생제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